

《정치 좀 아는 어린이》 독서지도안



‘정치’는 멀리 있지 않아요!
일상의 정치부터, 어린이를 위한 맞춤 정치 입문서!

- 작가_ 이영란 글, 박상훈 그림
- 출판사_ 풀과바람

본 독후 활동 자료는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정,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1. 도서 소개

지난 5월 6일,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을 주제로 시민 500명이 참여한 첫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최초로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민 공론 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해 선거제 개선 논의에 반영하는 데에 의의가 있죠. 이처럼 국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합의를 이룬 선거제 개편안은, 우리 국회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정치 좀 아는 어린이》는 어린이들이 일상의 정치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린이 맞춤 정치 입문서입니다. 딱딱한 정치 이야기에서 벗어나 가족회의, 두발 자율화, 1인 시위, NGO, 선거 등 우리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정치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냈습니다. 정치 관련 여러 개념과 현상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난 동화적 예시와 유머러스한 삽화, 유명 정치인의 설명 등으로 풀어나간 것이 특징적입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는 정치의 의미는 물론 자유와 평등, 인권, 대통령제, 지방 자치 제도, 정당, 삼권 분립, 시민 단체, 법과 심판 제도 등의 정치 기본 지식을 자연스럽게 익힐 것입니다. 또한, 자칫 어렵게 느꼈던 정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버리고 정치에 대한 궁금증을 풀며 정치가 우리 생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관심을 두고 바라보게 될 겁니다.

2. 지도 개요

- 대상 : 초등 3~4, 5~6학년
- 관련 교과 영역 : 4학년 1학기 사회 3. 지역의 공공 기관과 주민 참여
4학년 2학기 사회 3. 사회 변화와 문화의 다양성
5학년 1학기 사회 2.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4.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
6학년 1학기 사회 2.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3.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6학년 2학기 사회 2.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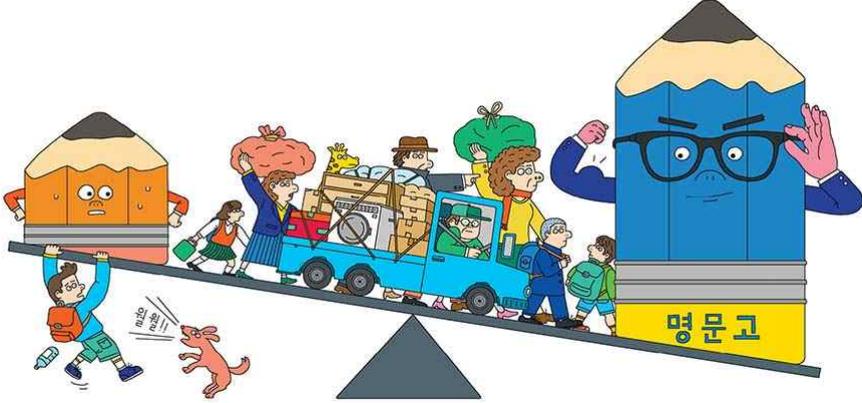
• 지도 요점 :

빵 하나를 놓고도 어떻게 나눠야 할지 의견이 분분해요. 누군가가 나서서 의견을 내놓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죠. 다른 의견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누군가 나서서 의견들을 모아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모두가 큰 불만 없이 빵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예요. ‘정치’는 멀리 있지 않죠!

책을 읽고 우리 주변에 있는 정치에 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3. 책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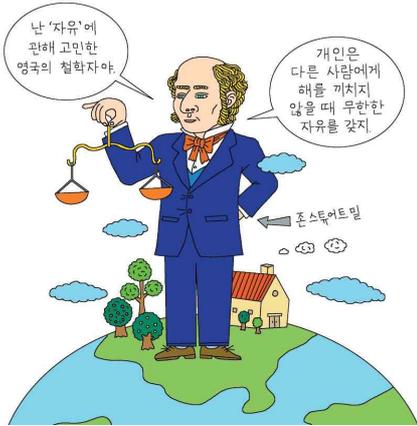
(1) 민호는 좋은 학교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나 고민하는 엄마와 아빠에게 그런 일은 무엇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나요?



- ① 가족회의
- ② 토론회
- ③ 청문회
- ④ 설문 조사



(2)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하길, 사람은 각자 최대한의 자유를 누려야 하지만 어떤 때는 예외라고 이야기했나요?



- ① 반대의 의견이 있을 때
- ②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될 때
- ③ 찬성의 의견이 있을 때
- ④ 모두가 찬성할 때



(3) 한 사람이 피켓이나 현수막, 어깨띠 등을 두르고 하는 나 홀로 시위를 무엇이라 하나요?



- ① 단식 시위
- ② 촛불 시위
- ③ 1인 시위
- ④ 무력 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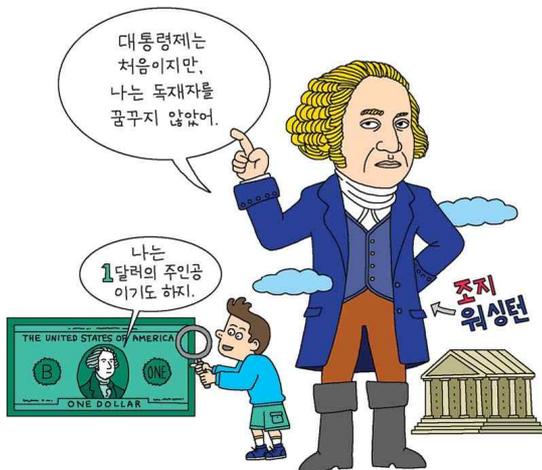
(4)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스스로 만든 모임인 시민 단체와 마찬가지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 중 하나로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비정부 국제 조직을 무엇이라 하나요?



- ① IGO
- ② WTO
- ③ OECD
- ④ N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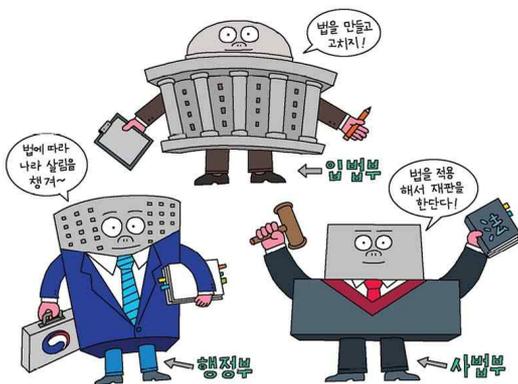
(5) 현대 민주주의 정부 형태의 하나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 또는 그런 통치 구조를 무엇이라 부르나요?



- ① 대통령제
- ② 의원 내각제
- ③ 집단 지도 체제
- ④ 주석제



(6) 국민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법을 만드는 곳을 무엇이라 부르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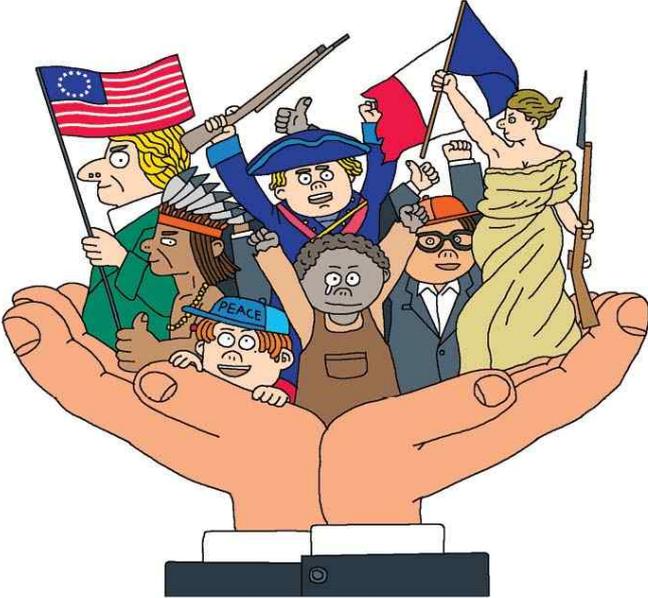


- ① 행정부
- ② 사법부
- ③ 입법부
- ④ 지방 정부



4. 확장활동

(1)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뜻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인권은 여러 혁명을 거치면서 숱한 희생을 치르고 얻어낸 것이죠. 그렇다면 이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기 위해 우리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2)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나 어린이의 인권 보호 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 같은 NGO에 참여해 보고 싶나요?



(3) 여러분이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된다면, 무엇을 가장 관심을 두고 지켜볼 건가요?



[정답]

책 이해하기

(1) ① 가족회의 | (2) ②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될 때 | (3) ③ 1인 시위 | (4) ④ NGO
| (5) ① 대통령제 | (6) ③ 입법부

확장활동

- (1) 인권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해요.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부당함을 알려야 해요. 등
- (2) 참여해서 세계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반크에서 사이버 외교관이 되어 우리 역사를 세계에 올바르게 알리고 싶어요. 등
- (3) 공약이 잘 지켜지는지 관심을 가질 거예요.
 실천 가능한 공약을 내세우는지 살펴볼 거예요. 등